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

금요일 공연·파티 '신나는 미술관'

'뮤지엄 마일(Museum Mile)'로 불리는 뉴욕 맨하튼 5번가를 걷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미술관이 있다. 달팽이를 연상케 하는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의 설계로 지난 1957년 문을 연 구겐하임 미술관 건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흡인력을 자랑하는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나선형 구조로 설계된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명작들을 담고 있는 박제된 공간이 아닌,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인 구겐하임은 랜드마크로서의 문화시설의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화려했던 것은 아니다. 광산재벌 메이어 구겐하임의 넷째 아들이었던 솔로몬 R. 구겐하임은 20여 년간 수집한 유럽·미국의 추상회화 컬렉션을 바탕으로 1937년 뉴욕 이스트 54번가에 소규모 '비구상회화 뮤지엄(Museum of Non-Objective Painting)'을 열었다. 뜻있는 수집가들의 기증에 늘면서 작품소장에 한계를 느낀 미술관은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간판을 바꾸고 새로운 미술관을 짓기로 했다.

미술관은 1943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미술관이 아닌 '영혼의 사원(Temple of Spirit)'을 지어달라"는 주문을 했다. 평생 자연과 건물이 하나 되는 '유기건축'의 철학을 내세웠던 라이트는 당시 62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야심찬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16년 뒤인 1959년 10월, 뉴욕 5번가에는 거대한 캄페이코를 거꾸로 엮어 놓은 듯한 흰색 콘크리트 빌딩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유일하게 지난 2000년 고 백남준씨의 작품 전시가 열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미술관에서는 차별화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 특히 맨하튼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선형 건물 명성...매년 전세계서 300만명 찾아 엄마·아빠와 그림 그리기 등 가족 체험행사 다채 매년 인근 8개 미술관 함께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

구겐하임 미술관은 개관 이래 지금까지 주로 비구상회화의 작품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역동적인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칸딘스키, 몬드리안, 브랑쿠시, 칼더, 사갈, 클레, 미로, 피카소, 브라크, 리우신버그, 리히텐슈타인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을 설레게 한다.

'칸딘스키 회고전' '중국미술 5000년 전' '모터사이클전', '조르조 아르마니 회고전' 등 대형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아시아 작가로는

이데이(first friday·밤 9시~다음날 오전 1시)는 구겐하임의 간판 프로그램. 미술관 회원들은 무료이지만 관광객들도 참가비 25달러만 내면 즐거운 금요일 파티에 동참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전시관을 둘러본 후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꾸미는 무대와 DJ들이 펼치는 흥겨운 공연을 즐긴다.

가족 프로그램으로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열리는 '세컨드 선데이즈(Second Sundays)'를 빼놓을 수 없다.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정오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투어, 아티스트가 들려주는 예술이야기, 아바·엄마와 함께 그림 그리기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참가인원을 제한해 교육자와 수강생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매년 6월 개최되는 '봄맞이 가족의 날(Spring Family Day)'은 봄날 오후 5~12세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모여 전시를 둘러 본 후 예술에 대한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벤트다. 참가자들은 미술관이 마련한 놀이행사와 공연에 참여하며 가족간의 화합을 다진다.

매월 화요일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이 열린다. 어린이들은 미술관 건물과 전시를 함께 관람하면서 예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팀을 구성해 그림이나 드로잉, 디지털 미디어를 직접 체험하기도 한다.

이와함께 매년 6월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인근 8개 미술관과 공동으로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을 열어 미술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체험을 안겨준다. 5번가 82~105 스트리트 구간에서 펼쳐지는 이 페스티벌에는 음악회, 그림그리기, 가족체험행사 등이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뉴욕=박진희기자 jhpark@kwangju.co.kr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구겐하임 미술관의 내부 모습. 매년 전세계에서 300만명이 찾는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5~12세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가하는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구겐하임은 '미술관 경영교과서'

뛰어난 마케팅 '글로벌 경영' 성공신화

구겐하임이 국제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수준높은 컬렉션이나 기획력 때문만은 아니다. 구겐하임은 다른 미술관들과 찾아볼 수 없는 글로벌 경영의 성공신화를 이뤘고 있다.

구겐하임은 우선 다른 미술관들과는 달리 활발한 해외진출을 시도했다. 스페인 빌바오, 이탈리아 베니스, 독일 베를린 등 해외분관을 두고 있으며 조만간 아랍에미리트에도 분관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뉴욕시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뉴욕 남동부에 총 6억8000만달러(약 8800억원)에 이르는 '뉴 구겐하임 프로젝트'(프랭크 게리 설계)를 진행 중이다.

구겐하임이 미술관들의 '경영교과서'로 불리기 까지는 지난 1988년부터 미술관을 이끌고 있는 토마스 크랜스 관장(사진)의 뛰어난 마케팅이 큰 역할을 했다. 경영학도 출신인 그는 1990년대 초반 45만명 수준이던 미술관 입장객을 300만명 으로 끌어올



뉴욕 남동부에 추진중인 '뉴 구겐하임 프로젝트' 모형도.

려 경제전문잡지 포브스로부터 '미술관 운영 방식을 새로 쓴 전락가'(2000년)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브랜드화'는 그가 가장 강조하는 구겐하임의 성공 비결이다. 모터사이클, 조르조 아르마니 등 비 순수예술 분야의 전시를 예술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 이로 인해 미술관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미술관 대중화시대를 열었다. 전시 내용보다는 '구겐하임에서 한다'는 컨셉을 강조한, 이른바 '브랜드화'가 통한 것이다.

지난해 국립 중앙박물관 개관1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크랜스 관장은 "더 이상 고객을 앉아서 기다리는 시대는 갔다"며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진희기자 jh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타워(주)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중정동 대지 75평 5층건물 2억1,700만 21억
*중정동 대지 75평 5층건물 2억1,700만 21억

민음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상가동 월세동 상가동계 토지
*토지: 208평(못매장, 병실, 목욕탕, 음악홀, 기타) 용도제한 평당470만

동부부동산(주)
1. 관산동 도원(메이.시) 122-1의 23호지
*토지: 525평(못매장, 병실, 목욕탕, 음악홀, 기타) 용도제한 평당470만

토우드공인중개사
토지
*산하동 800평 대지 도로변 평당890만
*관산동 300평 대지 도로변 평당890만

다우공인중개사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남양 현대저층차 출고장 건너편 오봉저수지(뉴시티) 바로 옆 210~360평 총8필지중 4필지 매각

(주)홈컨부동산
정밀하고 과학적인 검증
(주)홈컨부동산
상무지구 시장앞 한국은행후문옆